



PORSCHE



911 타르가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프레스킷

목차

최초의 헤리티지 디자인 모델

포르쉐 AG, 911 타르가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공개 4

포르쉐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세부 사항

50년대와 초기 60년대 정신을 담은 최첨단 911 6

포르쉐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세부사항

체리 레드(Cherry Red) 컬러와 코듀로이(Corduroy)의 부활 10

포르쉐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세부 사항

전설적인 후스(Fuchs) 휠 12

포르쉐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세부사항

필수불가결의 미덕: 포르쉐 타르가를 위한 차량 콘셉트 14

포르쉐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세부 사항

포르쉐 크레스트의 창조 16

동시대 스포츠카 역사의 한 축

포르쉐 헤리티지 디자인 전략: 클래식 디자인 요소의 재해석 19

연료 소비량 및 배출량

911 타르가 4S: 연료 소비량 – 도심 15.0 - 13.3 l/100 km, 고속도로 8.0 - 7.6 l/100 km, 복합 10.3 - 9.9 l/100 km; 복합 CO₂배출량 235 - 227 g/km

EU 모델 관련 세부 사항

연비와 CO₂ 배출량은 새로운 측정 방식인 WLTP에 따라 측정되었다. 당분간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한 NEDC 값이 명시된다. 이 수치는 기존 NEDC 방식으로 측정된 수치와 비교할 수 없다. 공식 연비 및 구체적인 공식 CO₂ 배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형 승용차의 연비, CO₂ 배출 및 전력 소비에 관한 안내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이 안내 자료는 모든 판매처와 DAT(Deutsche Automobil Treuhand)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최초의 헤리티지 디자인 모델

포르쉐 AG, 911 타르가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공개

슈투트가르트. 포르쉐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최신 911이자, 포르쉐 헤리티지 디자인 전략의 4개 컬렉터 제품 중 첫 번째 모델인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을 선보인다.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 스페셜 에디션은 전통적인 내외관 요소를 재해석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이 완벽히 결합되었다. 코드네임에 맞춰 총 992대 한정 판매되는 911 타르가 헤리티지 에디션은 현재 주문 가능하며, 2020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스페셜 에디션의 인테리어 요소는 헤리티지 디자인 패키지의 일환으로 현행 911 모델에도 이용 가능하다. 포르쉐 디자인은 컬렉터 제품 구매자를 위해 럭셔리 크로노그래프 역시 992개 한정판으로 제작한다.

포르쉐 AG 이사회 회장 올리버 블루메는 "이번 헤리티지 디자인 모델은 포르쉐 고객과 팬들에게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의 향수를 자극한다"라며, "포르쉐만큼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브랜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포르쉐 제품 전략의 한 축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제품 라인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스페셜 에디션 전용 컬러인 체리 메탈릭(Cherry Metallic)과 4개의 다른 외관 컬러, 그리고 골드 로고를 통해 1950년대 스타일을 연상시킨다. 911 타르가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의 외관은 역사적인 디자인과 함께 고급스러운 화이트 상징 컬러가 특징이다. 포르쉐 모터스포츠의 초기 시절을 연상시키는 프런트 윙의 스피어(spear) 그래픽 모터스포츠 요소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 다른 특징인 러기지 컴파트먼트 그릴에 부착된 포르쉐 헤리티지 배지는 포르쉐 356의 10만 km 주행을 기념해 만든 356 배지를 떠올리게 한다. 4개 포르쉐 헤리티지 디자인 모델은 모두 전통적인 문양과 현대적 해석의 조화를 통해 우아한 후면 디자인을 완성한다. 역사적인 1963년 포르쉐 크레스트가 보닛과 스티어링 휠, 휠 허브 커버 및 차량 키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요소들이 더욱 부각된다. 헤드레스트와 키 파우치 역시 역사적인 디자인이며, 그리고 기본 사양의 20/21인치 카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이 장착되며 클래식한 브레이크 캘리퍼는 블랙 컬러로 마감된다.

인테리어는 아타카마 베이지 컬러의 OLEA 클럽 가죽과 보르도 레드 또는 블랙 컬러 가죽을 조합한 익스클루시브 투 톤 가죽 인테리어를 적용해 역사적 디자인을 반영했다. 시트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코듀로이는 포르쉐 356에 사용되었던 소재로, 1950년대의 시대정신과 트렌드를 상기시킨다. 그린 컬러 조명의 클래식 타코미터와 스톱워치는 초극세사 패브릭 천공 루프라이너와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 가죽 트림과 함께 감성적인 콘셉트를 강조한다. 대시보드 트림 패널의 메탈 배지는 한정판 에디션의 번호가 기록된다.

최초의 헤리티지 디자인 모델은 992 세대의 신형 911 타르가를 기반으로 하며, 새시, 보조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등 각종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결합한 첨단 바이터보 박서 엔진의 911 타르가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은 최고출력 450마력(PS)을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 데 3.6초가 채 걸리지 않으며, 최고속도는 304km에 달한다.

포르쉐 헤리티지 디자인 전략: 클래식 디자인 요소의 재해석

헤리티지 디자인은 포르쉐 제품 전략 중에서 특히 감성적인 콘셉트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한다. 스타일 포르쉐 디자인 부서와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는 아이코닉 911 모델과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인테리어를 재해석해 포르쉐의 전형적인 특성을 라이프스타일과 접목시켰다. 2019년 선보인 911 스피드스터 헤리티지 디자인을 패키지는 이 같은 전략의 시초였다. 향후 포르쉐는 총 4개 한정판 시리즈의 스페셜 에디션 모델을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크로노그래프

포르쉐 디자인은 한정판 모델의 오너들을 위해 럭셔리 타임피스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크로노그래프를 제작했다. 우아하고 선명한 디자인의 크로노그래프는 992개 한정 제작된다. 차량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는 전설적인 포르쉐 356과 아이코닉 포르쉐 911 타르가에서의 영감을 받았다. 포스포러스 그린(Phosphorus Green) 링은 차량의 속도계와 타코미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시간 표시는 전형적인 포르쉐 레터링 디자인을 따른다. 새로운 스트랩은 포르쉐 인테리어 가죽으로 제작된다. "911" 양각 레터링으로 아이코닉 스포츠카에 헌사를 표했다.

포르쉐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세부 사항

50년대와 초기 60년대 정신을 담은 최첨단 911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은 50년대와 60년대 초반의 정교한 소재와 세밀한 장인정신, 역사적 디자인 요소들이 독특하게 어우러져 컬렉터 및 디자인 마니아들을 사로잡는다.

포르쉐 AG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 스페셜 에디션 총괄인 보리스 아펜브링크(Boris Apenbrink)는 "브랜드 가치 중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하고 있다. 타임리스 디자인과 특별한 포지셔닝의 헤리티지 모델들은 기술적 혁신을 더 강조하는 미래형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들의 디자인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스타일 포르쉐의 인테리어 디자인 책임자 이보 반 훌텐(Ivo van Hulst)은 "포르쉐는 처음부터 디자인과 스타일링의 기준을 정립했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의 포르쉐 차량들이 현재에도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포르쉐는 전동화 시대에도 역사 속 아이콘 디자인을 반영한 헤리티지 모델을 통해 브랜드의 본질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의 첫 헤리티지 디자인 모델은 최근 공개한 992세대 911 타르가 4S를 기반으로, 새시, 보조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등 각종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다. 하이테크 바이터보 박서 엔진과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결합해 최고출력 450마력(PS)을 발휘하며,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3.6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 최고속도는 304km/h에 달한다.

기본 사양의 첨단 장비 역시 광범위하며, 911 라인의 다양한 옵션도 이용 가능하다. 스포츠 배기 시스템(실버 또는 블랙 테일파이프), 고광택 블랙 컬러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된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PCCB), 리어 액슬 스티어링, 포르쉐 다이내믹 새시 컨트롤 (PDCC),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와 부메스터® (Burmester®) 하이엔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포함된다.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은 현재 주문 가능하며, 2020년 가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코드 네임처럼 992대 한정 생산된다.

외관: 전용 외관 컬러 및 "스피어" 모터스포츠 그래픽

911 시리즈 전용의 체리 메탈릭(Cherry Metallic) 외관은 브라운 컬러 음영을 넣은 현대적인 해석으로 1950년대 스타일을 잇는다. 솔리드 컬러 2종(블랙, 가스 레드), 메탈릭 컬러(GT 실버 메탈릭), 그리고 스페셜 컬러(크레용)를 선택 가능하며, 개성 있는 외관 디자인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특별한 개별 컬러도 제공한다.

프런트 윙의 "스피어" 모터스포츠 그래픽은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 요소 중 하나다. 창 모양 장식의 고급스러운 화이트 리버리(Livery)는 초기 모터스포츠의 시대를 연상시킨다. 당시 레이싱 카들은 충돌 흔적을 가리기 위해 도색을 했다. 스피어는 출전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사용되었고 고객들이 차량을 개인화하는 최초의 디자인 요소였다. 스페셜 모델 측면에는 역사적 디자인이 반영된 모터스포츠 그래픽이 사용된다. 이는 2019년에 선보인 911 스피드스터 헤리티지 디자인 패키지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0부터 99번까지 선택 가능한 스타트 넘버로 더욱 스포티한 외관을 연출할 수 있다.

후면과 타르가 바 위에 새겨진 골드 컬러 레터링과, 휠 허브 커버와 보닛에 새겨진 역사적인 포르쉐 크레스트가 전체적인 외관을 완성한다.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은 블랙 컬러의 20 또는 21인치 고광택(또는 옵션 사양의 플래티넘 새틴 글로스) 911 카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과 블랙 컬러 브레이크 캘리퍼로 클래식한 외관을 보여준다. 러기지 컴파트먼트 그릴에 부착된 포르쉐 헤리티지 배지와 실버 스포츠 테일파이프는 또 다른 특징이다.

인테리어: 코듀로이의 부활

특별한 외관 디자인은 인테리어에도 적용된다.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문구의 브러시드 알루미늄 패널이 차량의 고유한 매력을 더한다. 헤리티지 디자인 바닥 매트 는 통일감을 이루는 디테일을 보여준다.

보르도 레드 투 톤 가죽 덮개와 아타카마 베이지 OLEA 클럽 가죽이 스페셜 에디션 전용으로 디자인되었다. 다소 차분한 외관 컬러와의 매치를 위해 고객들은 블랙과 아타카마 베이지의 투 톤 가죽 덮개를 선택할 수 있다. 포르쉐 356에 사용되었던 코듀로이 패브릭을 적용해 50년대 패션 스타일의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부드러운 골 패턴의 코듀로이는 시트의 중

양 패널과 도어 패널에 적용된다. 반 홀덴은 "전통적인 컬러, 비품 이력 카드, 뮤지엄 차량, 시대 별 디자인 요소에서 과거 디자인을 재해석하기 위한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헤드라이닝과 A, B 필러 위에는 아타카마 베이지 컬러 천공 알칸타라®(Alcantara®)를 적용해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2 개의 고해상도 7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현대적인 계기판은 다양한 측면에서 역사적인 유대를 형성한다. 아날로그식 레브 카운터에는 클래식한 포인터가 장착되어 있다. 시동이 켜지면 시계바늘과 숫자가 화이트에서 그린 빛으로 변한다. 그린 스케일 라인 역시 포르쉐 356에서 영감을 받은 과거의 유산이며, 기본 사양의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에 포함된 계기판 시계도 그린 빛이 감돈다.

역사적인 포르쉐 크레스트 역시 인테리어에 반영된다. 헤드레스트와 스티어링 휠의 포르쉐 크레스트는 스토리지 컴파트먼트 커버에 양각된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 레터링은 뛰어난 장인정신을 강조한다. 글로브 컴파트먼트 장식 패널의 한정판 배지는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 외관과 동일한 컬러의 차량 키와 투 톤 가죽 키 파우치는 역사적인 포르쉐 크레스트와 함께 더욱 부각되며, 디테일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시다. 가죽 문서 폴더와 특별 디자인된 실내 커버는 진정한 컬렉션 아이템이라는 차량의 목표를 분명히 한다.

헤리티지 디자인 패키지: 모든 911에 적용 가능한 인테리어 요소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의 출시와 함께 선별된 인테리어 요소들은 모든 현행 911 모델에도 이용 가능하다.

퓨어 헤리티지 에디션(Pure Heritage Design) 패키지에는 다음의 리스트가 포함된다.

- 아타카마 베이지의 블랙/OLEA 클럽 가죽 또는 블랙/블랙 조합의 투 톤 가죽 덮개
- 코듀로이의 시트 중앙 패널 및 도어 패널
- 헤리티지 디자인 계기판
- 헤리티지 디자인 스포츠 크로노 시계(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옵션에 포함)

- 헤드레스트에 새겨진 역사적인 포르쉐 크레스트
- 보관함 커버에 양각된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 로고
- 아타카마 베이지 안전벨트(블랙/아타카마 베이지 가죽 인테리어와의 조합)
- 실버 911 배지
- 911 로고가 양각된 알루미늄 재질의 도어 실

포르쉐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세부사항

체리 레드(Cherry Red) 컬러와 코듀로이(Corduroy)의 부활

슈투트가르트. 타임리스 컬러와 소재가 적용된 포르쉐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의 체리 메탈릭(Cherry Metallic) 외관은 강렬한 레드 컬러로 1950년대 스타일을 연상시킨다. 당시에는 다크 레드가 트렌디한 컬러였다. 포르쉐 356 컬러는 파샤 레드(Pascha Red, 컬러 코드 Reutter 523, 524), 루비 레드(Ruby Red, Reutter 702)와 폴리안타 레드(Polyantha Red, Reutter 604)로 불렸다. 911 초기 모델의 버건디 레드(Burgundy Red) 컬러도 유명하다. 50년대 포르쉐 드라이버 메뉴얼과 책자 역시 다크 레드와 화이트로 제작되었으며, 워크샵, 포르쉐 리테일, 딜러십 레터링 역시 강렬한 레드 컬러로 빛났다. 코듀로이 패브릭과 마찬가지로, 레드 컬러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다. 강렬하고 고급스러운 체리 메탈릭은 실버 타르가 바와 골드 컬러 로고로 완벽히 조화된다.

스피어(Spears) 및 스타트 넘버: 고급스러운 모터스포츠 그래픽 요소

프런트 윙의 창 모양 화이트 장식인 스피어(spear) 모터스포츠 그래픽은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 요소다. 스피어는 초기 모터스포츠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레이싱 카는 충돌 흔적을 가리기 위해 도색을 했는데, 스피어 모양은 출전의 영광을 기리는 모터스포츠 최초의 디자인 요소였다. 역사적 디자인이 반영된 모터스포츠 그래픽 또한 특징이다. 0부터 99번까지 선택 가능한 스타트 넘버로 더욱 스포티한 외관을 연출할 수 있다.

코듀로이: 특별한 감촉의 패브릭

부드러운 코듀로이 골 패턴은 1952년부터 이미 포르쉐 356 시트 중앙 패널 트림에 적용되었다. 부드럽고 우아한 코듀로이는 시대정신과 패션 트렌드를 상징한다. 또한, 뛰어난 시트 통기성과 마찰력으로 차량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다.

컬러 앤 트림(Colour & Trim) 대표 볼커 뮐러(Volker Müller)는 “코듀로이(Corduroy), 페피타(Pepita), 파샤(Pasha), 그리고 타탄(Tartan)은 새로운 헤리티지 디자인 모델 인테리어로 부활한 역사적인 패브릭과 패턴들”이라며, “소재와 촉각은 역사적인 포르쉐 차량들을 떠올리

게 하는 아주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고 말했다. 컬러 앤 트림 디자이너 스테파니 클레이보메(Stéphanie Kleiböhmer)는 “오래된 패브릭과 패턴에 대한 연구가 정말 흥미롭고,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현 시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소재로 재해석해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의 아카타마 베이지(Atacama Beige) 코듀로이는 시트와 도어 패널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요소다. 폴커 뮐러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울 함량이 높은 오리지널 패브릭은 현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더 날렵한 외관 형성에도 기여하는 대체 섬유가 쓰이는 이유다.

코드(Cord)는 날실 또는 씨실로 짜인 패브릭으로 섬유 더미 끝이 루프로 뭉쳐져 있다.

모든 코드 타입은 전형적으로 종방향 리브(longitudinal ribs)의 간격과 수가 다양하다. 코드라는 용어는 영어 코듀로이에서 유래되었다.

중앙 유럽에서 코드는 맨체스터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18세기 말 영국 북서부의 맨체스터에 첫 직기가 설치된 것이 기원이다.

포르쉐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세부 사항

전설적인 흑스(Fuchs) 휠

슈투트가르트.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은 고풍택 블랙 컬러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의 20인치, 21인치 휠이 탑재된다. 와이드 스포크와 림 플랜지 면은 광택이 나며, 블랙 컬러 림과 스포크의 블랙 컬러 사이드에 비해 더 눈에 띈다. 휠은 윙 또는 클로버리프 모양으로 디자인되며, 1967년형 포르쉐 911 S에 처음 사용된 전설적인 흑스 휠을 연상시킨다.

흑스 휠, 클로버리프 디자인의 최초 단조 휠

한 동안 포르쉐는 스포츠카 기본 사양의 일부로 단순히 알로이 휠을 탑재했다. 알루미늄 휠 선택의 이유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논리적 사고를 반영한 결과였다. 신형 포르쉐 911 S는 스프링 하부 중량 감소를 위해 911 보다 가벼운 휠을 장착했다. 더 강력한 버전의 911에는 스틸보다 약 3kg 가벼운 소재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부품으로 만들어진 휠은 하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생산된 캐스트 알루미늄 휠은 처음에는 풀 수 없는 도전이었다. 이 모순은 가벼우면서도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휠 공급이 가능한 독일 자우어란트 지역 마이너차겐의 알로이 주조 공장 오토 흑스 KG(Otto Fuchs KG)사의 혁신 덕분에 풀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외측부터 내측까지의 완전한 림 영역이 하나의 조각으로 단조된 블랭크로 롤링되는 새로운 생산 공정이 실시되었다.

ALMgSi1 알루미늄 합금은 97%의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실리콘, 망간, 티타늄 및 기타 성분으로 구성된다.

한 점으로 가늘어지며 거미줄처럼 연결된 구조의 오리지널 디자인 휠은 1965년 5월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는 더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휠을 개선했다. 당시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의 제안과 달리 포르쉐 주니어는 스타일과 디자인을 이유로, 허브와 림을 연결하는 다섯 개의 거미줄 구조 연결부를 바꿨다. 우리 디자인은 기존 차량에 잘 어울리는 반면, 포르쉐 주니어가 개발한 모양은 새로운 차량에 더 조화롭게 보인다"

포르쉐 클래식: 여전히 유효한 클래식 흑스 휠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의 휠은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를 통해 모든 현행 911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클래식 흑스 휠도 역사적인 포르쉐 모델을 위해 이용 가능하며,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가 디자인한 휠은 포르쉐 클래식 제품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높은 수준의 품질과 안정성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포르쉐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휠은 바이작의 포르쉐 개발 센터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받게 된다.

포르쉐 오리지널 스페어 부품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 조건의 예로, 1980년대 "포르쉐 특별 요청 프로그램" 중, 양각 및 컬러 포르쉐 크레스트가 특징인 휠 트림의 컬러 접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테스트에서는 휠 트림의 기본 소재층까지 절단하고, 표준 접착 테이프가 부착되면, 압력을 가한 후 특정 각도에서 사전 설정된 시간 안에 제거되는 그리드 패턴이 생길도록 한다. 해당 테스트는 도장 표면이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는지 포르쉐 클래식 휠 캡의 높은 품질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향후 30년간 휠 센터가 거뜬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포르쉐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세부사항

필수불가결의 미덕: 포르쉐 타르가를 위한 차량 콘셉트

슈투트가르트.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타르가는 1960년대 초 미국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 끝에 포르쉐가 내놓은 실질적인 해답이었다. 디트로이트에서 댈러스까지 오픈 탑 스포츠카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위험한 차량으로 인식되었고, 컨버터블 미래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해외로 인도된 356 모델 대부분이 패브릭 루프를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쉐도 영향을 받았다. 포르쉐는 오픈 탑 파생 모델만을 고집하는 세일즈 부서 때문에 중요 시장인 미국의 고객을 잃을 수는 없었다. 시각적 매력과 기능적 형태의 상호 모순을 극복하면서도 브랜드의 스타일은 유지할 수 있는 새롭고 기발한 대책이 필요했다.

모터스포츠가 다시 한번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롤 오버 바를 장착한 오픈 탑 스포츠카는 레이싱카 고객 사이에서는 일반적이었다. 초를 다투는 경기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킷을 위한 디자인으로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심지어 911 디자이너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부치") 포르쉐는 세기의 디자인이라 일컬어지는 자신의 패스트백 카브리올레 버전에도 특별한 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어설픈 관 모양은 완전히 논외였다.

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든 매력적인 형태의 롤 오버 바로,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의 카리스마를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안전한 카브리올레" 탄생의 시초였다.

1965년 9월 프랑크푸르트 국제모터쇼에서 공개된 타르가의 모델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포르쉐 브랜드를 대표하는 카레라(Carrera)가 멕시코의 유명한 카레라 파나메리카나(Carrera Panamericana) 레이싱 대회에서 성공을 거둔 것에서 유래한 것처럼, 롤 후프를 장착한 새로운 911의 모델명 또한 모터스포츠의 의미를 내포한다. 르망(Le Mans)이나 몬자(Monza)도 후보였지만, 이미 사용 중이었다.

포르쉐는 시칠리아의 유명 타르가 플로리오(Targa Florio) 내구 레이스에서 5년 동안 4차례나 우승을 기록했다. 타르가 플로리(Targa Flori)도 논의 되었지만, 당시 세일즈 총괄 하랄드 바그너(Harald Wagner)는 플로리(Flori)로 단축될 것을 우려해, "그냥 타르가라고 부르는 것이 어때?"라고 반문한 것이 공식 모델명이 되었다. 이로써 탈착식 센터 루프 섹션을 특징으로 하는 타르가 모델이 탄생했다.

전 세계 가장 스펙터클한 레이스 서킷 중 하나인 타르가

타르가 플로리오는 시칠리아의 마도니에 산맥을 가로지르는 산악 도로에서 열리는 레이싱 대회였다. 1906년부터 1977년까지 최고출력 600마력(PS)의 레이싱카들이 굉음과 함께 산길의 급커브를 돌고, 그림 같은 산악 마을을 통과했다. 1978년부터는 랠리로 계속되었으며, 빈센조 플로리오(Vincenzo Florio)가 만든 오리지널 서킷은 체팔루(Cefalù), 세르다(Cerda), 칼타부투로(Caltavuturo), 카스텔라나(Castellana), 페트랄리아(Petralia), 제라시(Geraci), 카스텔부오노(Castelbuono)를 지나 이어졌다.

수 년 동안 빅 서킷(Big Circuit), 미디움 서킷(Medium Circuit), 스몰 서킷(Small Circuit), 시칠리안 랩(Sichilian Lap) 등 또 다른 루트가 생겨났다. 빅 서킷은 148 킬로미터의 길이, 1,000미터가 넘는 고도 차이로 선수와 차량 모두에게 특별한 도전이었다.

포르쉐는 1956년부터 1973년까지 타르가 플로리오에서 총 11번 우승했다. 이를 통해 1956년 제조사 월드 챔피언십(Manufacturers' World Championship) 우승을 기록했다. 움베르토 마글리올리(Umberto Maglioli)가 뉘르부르크링에 데뷔한 지 11일 밖에 되지 않은 포르쉐 550 A 스파이더를 몰고 1,000km 레이스에서 우승했을 때였다. 타르가 플로리오와 관련된 포르쉐 역사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상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 방패를 의미하는 타르가

플로리오 가문은 마르살라 와인, 화학 제품, 참치 가공 및 배송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 했다. 설립자의 손자 빈센조(Vincenzo, 1888-1958)는 회사 경영을 그의 형제 이그나시오(Ignazio)에게 맡겼다. 이그나시오는 빈센조에게 시칠리아 최초의 자동차를 선물했지만, 차보다 말이 더 빠를 때였다. 빈센조는 1906년부터 팔레르모 산악 지대에 도로와 주유소 건설 장려를 위해 레이싱 대회를 조직했으며, 상으로 은색 방패(이탈리아어: "타르가")를 수여했다.

포르쉐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 세부 사항

포르쉐 크레스트의 창조

스위핑 테일을 가진 독특한 말의 형상: 911 타르가 4S 헤리티지 디자인 에디션에는 역사적인 포르쉐 크레스트가 휠 센터와 보닛 위를 장식한다. 헤리티지 디자인 패키지의 일부로 모든 현행 911 모델에서도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헤드레스트에도 크레스트가 각인된다.

포르쉐 크레스는 오리지널 911(1964-1973)때부터 시작된 강렬한 레드-오렌지 컬러가 특징이다. 포르쉐 로고는 골드 베이스 컬러에 와이드 레터링을 사용하며, 슈투트가르트(Stuttgart) 레터가 오목한 배경 위에 양각된다. 말의 형상은 두드러진 어깨 관절, 스위핑 테일과 함께 활력 넘치는 모습이다.

포르쉐 헤리티지 배지: 신뢰성을 상징하는 초기 디자인에 대한 헌사

포르쉐 헤리티지 배지는 리어 엔진 커버 그릴에 위치한다. 디자인과 레터링은 포르쉐 356 차량으로 10만km를 주행한 모든 운전자들에게 제공되었던 포르쉐 356 시대의 전설적인 10만km 배지를 연상시키는 요소다.

포르쉐 크레스트의 역사

1948년, 포르쉐 로고가 브랜드 최초의 차량에 사용되었지만, 포르쉐 크레스트는 1952년에 만들어졌다. 1951년 3월, 포르쉐는 독일 아트 아카데미 경진 대회를 열어, 기업 로고 창작에 당시 화폐 1,000 마르크를 들였지만 만족스러운 디자인은 없었다. 1951년 말, 뉴욕을 방문한 페리 포르쉐는 미국 수입업자 맥스 호프만(Max Hoffman)에게 로고를 요청 받았고, 로고 디자인 역시 포르쉐가 자체 제작하게 된다.

1952년 초에는, 지난 1936년 폭스바겐 로고를 만든 유능한 디자이너 프란츠 자베르 라임스피스(Franz Xaver Reimspieß)가 환상적인 크레스트를 도안해냈다. 기업의 기원을 상징하면서도, 골드 컬러 방패 형상의 윤곽 안에 슈투트가르트 문장의 활기 넘치는 말의 형상으로 제품

의 품질과 역동성을 강조했다. 상단의 슈투트가르트 표기, 레드와 블랙 컬러의 조화, 뷔르템베르크-호엔츨레른(Württemberg-Hohenzollern)의 전통 문양에서 차용한 사슴 뿔 형상은 포르쉐 본고장에 대한 분명한 헌신을 의미했다. 포르쉐 로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아치형이다.

독일 특허청 등록 이후, 포르쉐 크레스트는 1952년 말 혼 버튼에 처음 적용 되었고, 1954년 11월 포르쉐 356 스피드스터의 보닛 핸들에도 추가되었다. 1959년부터는 휠 캡을 장식했으며, 보닛 위 크레스트는 모든 포르쉐 차량의 특징이 되었다. 그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는 포르쉐 크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표 중 하나가 되었으며, 포르쉐 AG의 허가를 받아야만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

포르쉐 클래식 크레스트: 오리지널 디자인과 입증된 품질

오리지널 포르쉐 크레스트는 다양한 범위의 역사적인 모델을 위해 포르쉐 클래식을 통해 제공되며, 오리지널 도안에 따라 특수한 톨로 제작된다. 크레스트 도금과 컬러 및 에나멜링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 현재의 크레스트와 달리, 당시 포르쉐 로고는 블랙 컬러 마감 없이 양각으로 새겨졌다. 또한, 뷔르템베르크-호엔츨레른 주의 상징 컬러와 마찬가지로 오렌지 색상에 가까운 레드 컬러가 적용되었다. 높은 완성도의 클래식 포르쉐 크레스트 개발을 위해 바이작의 포르쉐 R&D 센터에서 기후 변화 주기 테스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테스트가 실시된다.

포르쉐 크레스트는 수년 간 세심한 디자인의 변화를 거쳤다. 포르쉐 클래식은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크레스트를 제공한다.

- 1954년 이후로는 포르쉐 356, 1964년부터는 911에서 다른 크기의 크레스트 제공
*1954년 디자인 세부 사항은 1페이지 참조
- 1974년부터 포르쉐 로고에 골드 컬러가 적용. 슈투트가르트 레터링은 오목한 배경에 양각되고, 포르쉐 크레스트는 투명한 레드 컬러로 강조
- 1994년부터 포르쉐 로고는 슬림한 블랙 컬러 레터링이 특징. 오목한 슈투트가르트 글자: 투명한 레드 컬러 빛이 감돌고, 우아한 말의 형상

골드 컬러 로고: 모든 헤리티지 디자인 모델의 두드러진 특징

포르쉐는 후면과 타르가 바에 새겨진 골드 컬러 로고를 통해 역사적인 디자인 특징을 연상 시킨다. 최초의 포르쉐 모델에는 실버 컬러 로고가 반영된 반면,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후면의 골드 컬러 로고가 독보적인 외관을 연출한다. 1965년 포르쉐 912, 1968년 포르쉐 911 T가 공개되면서부터 골드 컬러 로고는 실버와 블랙 아노다이즈 레터링으로 점차 대체되었다. 하지만, 이제 골드 컬러 로고는 모든 헤리티지 디자인 모델을 돋보이게 하는 차별화된 특징이다.

동시대 스포츠카 역사의 한 축

포르쉐 헤리티지 디자인 전략: 클래식 디자인 요소의 재해석

슈투트가르트.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는 "스타일 포르쉐" 디자인 부서와 함께 특별한 콘셉트를 개발 중이다. 포르쉐는 헤리티지 디자인 전략의 일환으로, 1950-80년대까지의 아이코닉 디자인 요소와 함께 익스클루시브 911 모델을 재해석한다. 최첨단 스포츠카 기술이 반영된 스페셜 모델들은 포르쉐 제품 전략 안에서 브랜드의 역사는 물론,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감성적인 콘셉트까지 반영한다.

지난 해 4월 중순,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된 911 스피드스터 헤리티지 디자인 패키지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최초의 디자인이었으며, 또 다른 한정판 스페셜 모델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헤리티지 디자인 패키지"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선택된 다양한 요소들은 911 모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포르쉐 AG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 차량 책임자 보리스 아펜브린크(Boris Apen-brink)는 "브랜드 가치를 미래로 전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며, 헤리티지 디자인 모델은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모델에까지 해당된다"고 말했다. 스타일 포르쉐의 인테리어 디자인 책임자 이보 반 훌텐(Ivo van Hulten)은 "포르쉐는 처음부터 디자인과 스타일링의 기준을 정립했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의 포르쉐 차량들이 현재에도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포르쉐는 전동화 시대에도 역사 속 아이코닉 디자인을 반영한 헤리티지 모델을 통해 브랜드의 본질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헤리티지 디자인 모델은 독특한 컬러와 소재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별한 도장 및 상징색으로 스페셜 에디션의 아이코닉 디자인을 강조한다. 반 훌텐은 "전통적인 컬러, 비품 이력 카드, 뮤지엄 차량, 시대 별 디자인 요소에서 과거 디자인을 재해석하기 위한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섬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코듀로이(corduroy), 페피타(Pepita) 패턴, 파샤(Pasha) 패턴, 또는 타탄(tartans)과 같은 스타일을 정의하는 요소들이 새롭게 디자인되었으며, 최첨단 소재 특성과 함께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 스페셜 모델이 생산되었다.

그는 또한 "과거의 개인적인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컬러 조합, 느낌 또는 패턴들은 현재 패션 및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와도 부합하며, 이는 아이디어 본질을 추구하는 접근법이 되었다"고 말했다. 전통과 혁신의 대립은 보닛 중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스페셜 모델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적인 포르쉐 로고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포르쉐 디자인은 헤리티지 디자인 오너들을 위해 차량 콘셉트와 일치하는 전용 타임피스를 개발했다. 911 디자이너이자 포르쉐 디자인 설립자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 교수의 정신에 부합하는 아이코닉 디자인을 현 시대로 다시 가져왔다. 포르쉐 디자인 타임피스 총괄 게르하르트 노바(Gerhard J. Novak)는 "다양한 티타늄 공정과 개인화를 강조한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이번 포르쉐 디자인 시리즈의 특징"이라며, "페피타와 타탄처럼 특별하게 재해석된 패턴의 타임피스 컬렉션은 브랜드 역사에 대한 헌사를 표한다"고 설명했다.